

# 얼마나 생산되나 세계의 農木産物

## 調 査 部

### 쌀

4億톤 추정

美國이 主輸出國

쌀은 밀, 보리와 함께 人類의 중요한 식량 자원의 하나이다. 쌀의 중요성분은 전분과 단백질, 지방, 섬유, 회분등이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 主食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50~60여개국에 달하지만 주요생산국은 줄잡아 20여개국,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80~90%를 생산하고 또 거의 아시아지역에서 소비된다.

세계쌀생산량은 제 2차대전전에는 年間 1억 5천만t 정도였으나 그후 품종 및 土地개량과 함께 기계화동 영농기술개발 및 향상으로 쌀의 생산은 크게 늘어났다. 1976년의 경우 세계는 3억 6천 60만t을, 77년엔 3억 4천 8백 90만t을, 79년에는 3억 6천 6백 30만t을 각각 생산했다.

금년도에는 3억 7천 5백 9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78년의 경우 쌀생산량의 82%를 아시아지역이 차지했는데 가장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中共으로 年 1억 2천 6백 50만t을 생산, 世界생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

음은 印度로 7천 8백 80만t을 생산, 世界생산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印尼 2천 2백 50만t, 방글라데시 1천 9백 60만t, 日本 1천 6백 40만t, 泰國 1천 5백만t, 버마 8백 80만t, 한국 6백 30만t, 파키스탄 4백 40만t의 생산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世界 쌀생산 8位國에 머물고 있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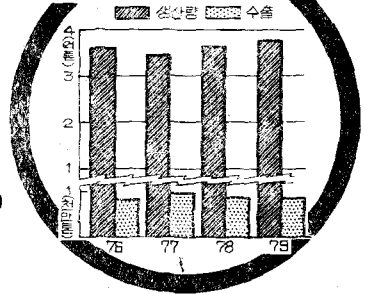
시아지역 이외에서의 주요쌀생산국은 EC·美國 등 15개국. 브라질이 78년의 경우 7백 50만t을 생산, 수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다음은 美國으로 年 4백 5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EC지역 70만t, 오스트레일리아 50만t, 아르헨티나 30만t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 5천 2백 20만t을 생산 78년 世界年間 쌀생산량은 3억 6천 6백 30만t에 달하고 있다.

한편 年間 쌀수출량은 9백 10만t(78년)에

世界쌀생산 및 무역고추이



달하고 있는데 주요 수출국은 美國, 泰國, 日本, 버마등 7~8개국이다.

美國은 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年間 생산량의 50%이상인 2백 20만t을 수출, 世界 제 1의 수출국이 되고 있다. 다음은 泰國으로 年間 1백 50만t 규모를 수출하고 있고 中共 역시 1백 10만t 규모를 수출한다.

이밖에도 파키스탄 80만t, 버마 40만t, 오스트레일리아 30만t, 이탈리아 20만t, 기타 지역 2백 60만t을 각각 수출하고 있다.

반면 수입국은 방글라데시, 홍콩, 印尼, 이란등 19개국에 달하고 있다.

연간 쌀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印尼. 印尼는 78 년도의 경우 2백 10만t을 美國, 泰國, 버마 등으로 부터 수입했다.

다음은 EC지역 9개국으로 연간 80만t을 수입하고 있으며 西말레이시아 이란은 각각 50만t씩을 수입했다.

이밖에도 홍콩 40만t, 방글라데시 30만t, 스리랑카 30만t, 싱가포르 10만t의 수입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금년 들어 이미 25만t을 수입했고 다시 25만t 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쌀수입국이 됐으나 올해는 풍작이 예상돼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쌀생산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70년대에 들어서는 아시아의 중요생산국들이 수리시설을 갖추고 기계화작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美國의 쌀생산량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세계 쌀 재고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6년에는 1천 7백 50만t, 77년에는 1천 7백만t, 78년에는 2천 1백 10만t에 달했다. 이 현상은 금년에는 더욱 심화돼 금년도 재고량은 자그만치 2천 4백 2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재고량은 1억 人口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에 상당하는 것이다.

재고량이 많은 나라는 美國. 美國은 76년도에 1백 20만t의 재고량을, 77년도 1백 30만 t, 78년 90만t, 금년도에 1백 70만t의 재고가 예상되고 있다.

日本도 매년 쌀재고가 늘어 처리에 오히려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77년도에는 史上 최고의 쌀풍년을 기록, 6백만 6천t을 생산, 印尼에 7만t의 쌀을 수출하기까지 했다. 생산량도 10a당 4백 94kg이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이룩함으로써 자급도는 1백 13.8%를 마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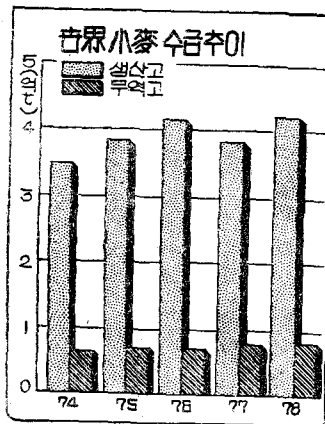


## 한해 4億톤收穫 美 印度서 大量 소비

밀은 벼과에 속하는 1년생(봄밀)과 越年生가을밀이 있다. 밀중에서 韓國뿐 아니라 世界 名地에서 재배되는 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통밀을 말한다. 보통밀의 원산지는 소련의 아르메니아 지방으로 알려졌다. 밀은 적어도 5천~6천년의 재배역사를 가진 작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BC 1백~2백년쯤에서 부터 재배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밀은 영양분이 쌀보다 많아 주식人口도 쌀

보다 많고 재배지역도 쌀의 2배가 넘는 1백 10여 개국에 달하고 있다. 밀의 年間생산량은 출잡아 4억여t 에달



하고 있다. 1백 10여개국 중 주요 밀생산국은 蘇聯, 美國,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印度 등 10여개국.

가장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蘇聯으로 年間 1억 1천만t을 生産, 世界生産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美國으로 4천 9백만t을 생산하여 12%를 마크하고 있다.

3위는 印度로 3천 1백만t, 캐나다는 2천만t을, 오스트레일리아는 1천 2백 50만t, 아르헨티나 7백만t 등의 생산순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年間평균 5만t생산에 그쳐 世界생산량에 차지하는 포션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밀의 世界무역량은 연간 7천여만t에 달하고 있다. 수출주도국은 美國,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C國, 아르헨티나 등이다. 美國의 연간 수출고는 3천 1백만t으로 생산량의 60%를 수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1천 5백만t을 수출하고 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는 8백만t을, EC國은 9백만t을, 아르헨티나는 2백 30여만t을, 蘇聯은 1백만t을 각각 수출하고 있다.

印度 등 대생산국은 국내 소비가 많아 오히려 수입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주요수입국은 中共, 日本, EC 등 10여 개국에 달하고 있다. 中共은 12년간 1천만t을 수입, 가장 수입을 많이하고 있고, 日本은 5백 60여만t을 수입하고 있다.

또 EC국은 7백 60여만t을, 蘇聯은 5백만t을, 東歐圈은 4백 40여만t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年間 평균 1백 70만~2백만t을 수입해오고 있다.

밀을 주식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나라들은 美國, 蘇聯, EC國, 東歐圈.

蘇聯은 年間 1억 1천 2백만t을 소비하고 있으며 中共은 5천 4백만t을, 美國은 2천여만t을

소비, 多消費國으로 손꼽히고 있다. 印度, 아르헨티나 등 기타국에서는 年間 2억 2천 5백만t을 소비, 世界전체의 연간 밀소비량은 4억 t을 웃돌고 있다.

밀의 소비는 주식 이외에도 사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美國 등에서는 매년 재고가 쌓이고 있다. 78년말 현재 밀의 世界재고량은 8천여만t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美國은 2천 9백여만t, 기타국 5천 2백여만t의 재고량을 갖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78년도에 4만 9천여t의 밀을 생산했고 부족분 1백 75만t(3억 달러상당)을 수입한 바 있다.

농정당국자들은 소비기호도가 적은 보리대체作物로 밀의 증산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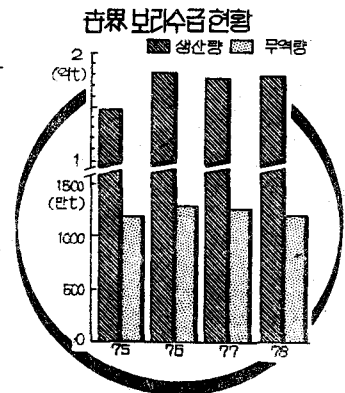
90個國서 生産  
輸人 日本이 으뜸

보리는 禾本科에 속한다. 봄보리는 1년생이고 가을보리는 越年生이다.

보리의 원산지는 揚子江 上流로 알려져 있고 기원은 7천~1만년 전부터 재배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古代 中國으로부터 도입, 재배한 후 日本에 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봄보리의 경우 재배분포 지역은 북위 16도에서부터 70도까지. 가을보리는 추위에 저항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온대 남부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

FAO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재배면적은 총



9천 1백 36만ha에 1억 7천 4백여만t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에서 보리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90여개국에 달하지만 주요생산국은 蘇聯, 美國, 中共, 西獨, 印度, 터키, 프랑스, 日本, 韓國 등 20여개국.

보리생산은 60년대에는 1억 3천 9백여만t에 그쳤으나 그후 品種 및 土地改良사업 등으로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다.

세계의 보리생산은 69년 1억 3천 5백만t, 70년 1억 3천 8백여만t, 75년 1억 5천여만t, 76년 1억 8천 4백여만t, 77년 1억 7천 3백만t, 78년에는 1억 7천 4백여만t을 각각 생산되었다.

79년도에도 78년도 수준생산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보리 생산량의 40%를 유럽이 차지하고 있으며 蘇聯은 30%, 아시아는 16%를 생산하고 있다. 또 北美洲, 아프리카, 대양주의 생산 순위를 보이고 있다.

보리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蘇聯으로 평균年間 5천 7백여만t을 생산하고 있다.

또 프랑스, 英國, 中共의 생산량은 연간 각각 1천여만t을 넘고있다. 美國은 연간 9백만t을, 西獨 7백 50만t을, 덴마크, 스페인 각 6백여만t을, 韓國은 1백 70만t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한편 보리 수출량은 연간 1천 2백여만t에 달하고 있는데 주요수출국은 프랑스, 蘇聯, 美國등 10여개국이다. 프랑스는 연간 2백 40여만t을 수출, 세계 제 1위의 수출국이 되고 있다.

다음은 美國과 蘇聯, 이들 국가는 1백 50여만t을 각각 수출하고 있으며 英國은 50만t을 덴마크는 40만t을 수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벨기에, 룩셈부르크 지역이 40여만t을 수출하고 있으며 체코, 스페인등 5~6개국도 주요수출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면 보리수입국은 日本, 키프로스, 알제리 이란, 이라크, 東獨, 폴란드, 스위스 등 30~40여개국에 달하고 있다.

보리수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日本. 日本은 77년의 경우 1백 70여만t을 수입했다. 또 알제리, 이란, 이라크, 東獨, 폴란드등 나라에서도 20만~30여만t씩을 수입하고 있다.

기타 수입국의 수입량은 5만~6만t에 달하고 있다.

세계의 보리재고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5년에는 2백만t, 76년에는 2백 50만t, 77년에는 2백 60만t, 78년에는 4백만t에 달하고 있다.

재고량이 많은 나라는 프랑스, 美國, 스웨인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보리생산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비는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식생활구조고급화현상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보리생산량은 60년초 1백 10만t규모에서 70년대에 들어서서는 1백 50만t 규모로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량은 점차 줄어 77년 연간 1人當 소비량은 28.5kg이었고, 78년에는 18.1kg으로, 79년에는 17.1kg으로 점차 감소했다. 따라서 이월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풀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77년 이월량은 1백 26만 8천t, 78년도는 88만 1천t, 금년도는 1백 54만 1천t에 달해, 섬으로 계산하면 처음으로 1천만섬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이다.

농수산부는 보리소비촉진책을 강구하는 한편 올가을보리부터 보리채배를 농민자외에 따라 심도록 정책을 전화했다.

농수산부관계기관은 수익성이 낮은 보리채배보다는 맥주맥 등 수익성이 높은 대체작물 개발에 힘써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